

귀신 잡는 해병이 귀신 대신 발우를 잡은 까닭은?

강화 전등사 해병대 템플스테이

9월 21일 새벽 4시. 산사의 새벽 찬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대웅전 앞으로 빨간 티셔츠에 고운 범복을 입은 청년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는데 보인다. 두 손은 모아 차수를 하고 순한 양처럼 조용히 걸어간다. 강화도 전등사의 새벽바람 정도는 시원하다고 말하는 해병대 장병들이다.

행사에 참가한 26명의 장병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새벽예불에 참가했다. 종교가 다른 이들은 절을 하지 않고 앉아서 참선했다. 습담이 보송보송한 20대 초반의 어린 장병들 눈에는 새벽 졸음이 가득했다. 이른 기상 시간 때문이었을까. 부대 안 보다는 마음이 편해서였을까. 깜박 잠이든 이들도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청년들은 법당을 떠났다. 법당에는 목탁소리와 경전을 외는 소리는 날이 밝도록 그치지 않았다. 법당 안에서 새어오르는 불빛과 새벽 찬 공기가 만나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강화도 전등사(주지 승석)는 9월 20~22일 강화도·김포에 주둔하는 해병 2사단 장병 26명을 초대해 '해병대 제1회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장병들의 자원을 받아 계속 된다. 이는 전등사와 강화사암연합회, 해병대가 힘을 합쳐 템플스테이를 지원에 나선 결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장병들의 인성교육과 마음공부를 돕고자 마련했다.

청룡사 군법사인 실원 스님은 행사를 총괄해 진행했다. 스님은 "자유훈 공경법이 30명을 훌쩍 넘길 만큼 많았다. 밖에 나 갈 수 있다는 즐거움과 절에서 먹고 자한다는 호기심이 발동해서였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절에 한번쯤 오고 싶어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조건희(20) 일병은 "템플스테이하면 편하게 걸 줄 알았는데 군대만큼이나 많은 규칙에 놀랐다. 새벽 4시에 기상해 108배하고 발우공양에 산행까지. 하루일과가 꽉 찼다"고 말했다. "참선을 직접 경험 보니 인성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절에 오니 마음이 차분해 졌다"고 말했다.

강화도 전등사는 여느 사찰과는 다르게 조금 더 군대와 친숙하다. 민족 수호의 역사와 함께해왔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16년간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장소이기도하다.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의 근본 도량으로,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군을 물리친 국왕의 요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600여 년 이어온 문화유산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창건되어온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사찰이다. 전



전등사는 단군의 세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에 둘러 쌓여있다. 산성을 따라 걸으며 '숲길 명상'을 하는 해병대 장병들.

등(傳燈)이란 불법(佛法)의 등불이다. 즉, 불법을 전하는 사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등사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일주문과 사천왕을 볼 수 없다. 단군의 세 아들 부여, 부우, 부소가 쌓았다는 삼랑성(三浪城)이 전등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등사의 주변 능선을 따라 2300m인 토성은 민족자존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있다.

아침 6시 발우공양이 시작됐다. 청룡사 법사 실원 스님이 발우공양을 진행했다. "발우를 피고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밥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맨 끝에 두 사람이 나와 시작하세요." 까까머리 동자승 같은 어린 해병대 대원들이 두 줄로 마주 앉았다. 배도 고프기도 했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해 본다는데 조금은 들떠있었다. 발우공양을 모두 처음 해보는 터라 법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왕좌왕 실수 연발이다.

평소 배식에 익숙할 텐데도 괜히 절에 오니 낯가득하니 듣고도 어쩔 줄 몰라했다. 보다 못한 실원 스님이 한마디 했다. "통만 들고 국자는 상대방에게 주면 됩니다." 군

산사에서 3일간 템플스테이 마음공부·인성교육에 제격

인의 모습이러기보다는 평범한 20대 청년들 같은 느낌이다. 본인들의 마음가짐이 그러하였을 것이리라.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 천천히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방석 깔고 발우포의 줄도 딱딱 맞춘다. 이럴 때면 영락없는 해병대 모습이다.

밥 먹기 전에는 우왕좌왕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밥 먹는 시간만큼은 순조롭다. 한참 달고 기름진 것이 먹고 싶을 터이지만 심심한 절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병사들이 가장 걱정하던 발우를 씻는 시간이 됐다.

"마지막에 단무지로 발우를 닦으면 남은 것들이 다 같이 떨어 나옵니다. 첫물은 다 마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같은 발우에 밥 먹을 테니 깨끗이 닦으세요."

"에 알겠습니다!"

대답은 씩씩했지만 다들 주저 하는 모습이 영려했다. 방금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았으니 손가락이 들어간 물을 마셔야 했다. 옆 동료들이 어찌하나 눈치를 살폈다. 그러고는 벌컥벌컥 마셔 버렸다.

실원 스님은 "밥알갱이 하나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는 식사가 발우 공양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발우 공양을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잊지않도록 하세요"라고 말하고 발우 공양을 마쳤다. 공양이 끝나자 날은 환하게 밝아왔다.

절에 와서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걸어 다닐 때도 차수를 해야 하고 말소리도 크게 내서도 안된다. 밥 먹는 것에도 절차가 이렇게 많으니 짜증이 날 법도 했다. 그러나 장병들은 "있으라고 하면 일주일도 있을 수 있어요"라고 답하며 즐거워했다.

쉬운 군 생활이 어디 있겠나!만큼 강화도와 김포에 주둔하는 해병대 장병들은 전방을 지키는 긴장감 때문에 군생활의 피로가 가중된다. 산중의 절이 대중들에게도 시름을 달래고 마음을 달래 주듯이 장병들에게도 전장을 풀고 휴식하는 습터가 되고 있는 듯했다.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해병대 장병들이 진지하게 참선수행에 임하고 있다.



처음으로 발우공양을 해보는 병사들.

해병대, 전군 최초 템플스테이 개최

청룡사 군법사 실원 스님

"해병대만 뿐만 아니라 전군 최초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30명 안팎의 장병들이 전등사를 찾은 계획입니다. 이번이 해병대 1기 템플스테이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전하는 좋은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원 스님은 해병대 청룡사 군법당에서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군 측에서 먼저 장병들에게 인성교육으로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해병 8연대 전 대원들이 한 번씩은 다 다녀 갈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 2박 3일로 진행한다. 30명이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어

려했다. 다행이 해병대와 전등사, 강화사암연합회가 공동 부담하기로 결정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스님은 "해병대 병사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배운 마음공부는 좋은 추억과 함께 바른 인성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 번의 템플스테이가 2년 내내 군 법당에 잠깐씩 다녀간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ince 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2012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월
258mm×265mm

2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신간 약사여래본원경
[독송용]

할인가 **4,500원**(50권이상)
정가 **7,500원**

- 내지 : 809매트지(자연색) 162P 옅색2(탁독)
- 표지 : 250아트지 옅색 4(유광코팅)
- 제본 : 무선 제본
- 크 기 : 190mm×260mm

[12월] 12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 (051) **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드라독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